

3도3군 관광협의회-쏘카 ‘맞손’

공유차로 ‘전북 무주군·충북 영동군·충남 금산군’ 방문·체류하면 최대 70% 할인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이 함께하는 ‘3도3군 관광협의회’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썬쏘카)와 손을 잡았다.

3도3군 관광협의회(사무국: 무주군)에 따르면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썬쏘카) 카셰어링 본부 안동화 사업그룹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연계 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및 할인 혜택 제공, △공동 홍보활동 추진, △지속가능한 기간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유차’를 활용한 지역 간 관광 이동 편의 제공 항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와 영동, 금산 지역 대표 축제에 열리는 기간에 썬쏘카를 타고 해당 지역을 방문(6시간 이상 체류)하면 이용 요금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다.

3도3군 대표 축제는 무주산골영화제(2025. 6. 6.~8.) 및 무주반딧불축제(2025. 9. 6.~14.), 영동세계국악엑스포



3도3군 관광협의회는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썬쏘카) 카셰어링 본부 안동화 사업그룹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 9. 12.~10. 11.), 금산세계인삼축제(2025. 9. 19.~28.)이며, 축제 기간을 제외한 5월, 7월, 8월, 11월에는 썬쏘카 이용 금액의 5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3도3군 관광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운영하는 연계 관광상품 성과를 바탕으로 무주와 영동, 금산 주요 거점에 ‘썬카존(SOCAR ZONE)’ 설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는 관광 연계의 시작이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해법이 될 거로 본다”라며 “3도3군 각 지역 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계절별, 지역별 특성을 보고 찾아오는 여행객 수요를 만족시켜 체류 분위기 조성, 관광 소비 확산이라는 결실을 거머쥔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대표브랜드 대상 2관왕

진안홍삼·휴양관광도시 부문 동시 수상 쾌거

진안군은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진안홍삼’과 ‘휴양관광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건강식품과 관광산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진안군의 대표 특산물인 ‘진안홍삼’은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국민 건강식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풍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으로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진안홍삼은 2005년 전국 유일의 홍삼특구로 지정되고,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홍삼명인을 배출하는 등 품질과 신뢰도를 꾸준히 인정받아왔다.

또한 진안군은 ‘휴양관광도시’ 부문에서도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홍삼산과와 진안고원치유숲의 수처리 △운장산자연휴양림과 부가면백운의 산림치유 △진안고원길을 활용한 걷기치유 △치유음식 및 약초치유 등 특화된 치



유관광 콘텐츠를 운영해 독창적인 관광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MBC가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 인지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시상식은 16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 스티홀에서 개최됐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홍삼의 10년 연속 수상과 더불어 휴양관광도시 브랜드로서도 전국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진안군민과 농가, 기업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두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진안군을 세계적인 건강·치유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무주군은 16일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정 안전재단 분야 공무원들과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주민 20여 명이 주축이 돼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집중안전점검을 비롯한 산별 예방(불법 소각, 담배꽂초 투기 금지), 국민 행동 요령,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등을 알렸으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혜택 안내도 병행해 효용을 얻었다.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상은 지역 내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 86곳으로 폐



기물 처리시설과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된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주민들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주군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해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 시행

무주군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선다.

16일에는 hy(한국아쿠르트) 우아점(대표 김재용), ‘사회복지법인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평)’와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기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추진 계획과 내용,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및 조치 방법, 그리고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hy(한국아쿠르트)와 사회복지법인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는 고독사 위험 주민 32명에게 주 1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미개봉 음료나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사회복지과로 내용을 전달하고 행정에서는 복지상담, 서비스 및 유관기관 연계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몽골과 치유의료관광 국제화 본격 시동

몽골 달란드자가르시 방문단 진안 찾아 협력 방안 논의

진안군은 몽골 유력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통해 치유의료관광 분야의 국제무대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진안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몽골 남고비 아이막(남고비주) 주도인 달란드자가르(Dalandzadgad) 시에서 척트 데네더르지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의료진 등 8명으로 구성된 공식 방문단을 맞이했다.

군은 이들과 함께 치유의료 및 웰니스 관광 기반 확대를 위한 현장 체험과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진안군과 대자인병원이 체결한 치유의료·웰니스 관광 협약의 후속 조치로, 몽골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몽골 방문단은 진안홍삼, 한방의료,

치유형 웰니스 프로그램 등 진안의 주요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진안민의 특화된 관광 인프라를 둘러보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16일에는 전춘성 군수와 척트 데네더르지 시장이 진안군청에서 공식 간담회를 갖고,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 농업 기술 협력, 의료·관광 분야 협업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진안군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몽골 주요 인사 대상 치유관광 유치 기반 마련 △웰니스 브랜드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국제 협력의 폭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위한 베트남 현지 방문

장수군은 관내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베트남 남딘성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방문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발 면접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날 베트남 남딘성과 계절근로자 선발 및 송출에 관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장수군에 배치될 계절근로자 20명을 선발하기 위해 장수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남딘성 내무성 및 일자리센터 담당자들과 업무협약 관련 면담을 가졌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본국에서 기초 한국어, 한국 문화, 농업 등에 대한 의



무 교육을 받은 뒤 한국에서 사증 발급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5월경에 한국에 입국해 주요 농업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홍보 나서

장수군이 지난 3월 제정된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일제 홍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특히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장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장수’를 위해 군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지양하고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앞으로의 공공기관 1회용품 규제 관련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10의 행사 시 음식대 설치 및 개인 텀블러 지참을 유도 △내부 회의·행사 시 1회용컵 및 플라스틱 생수병 제공 자제 △1회용 봉투 사용 대신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사무용품 및 사무용 가구 등 구매 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의회,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장수군의회(의장 최환주)는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영호남을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전주-김천 간 영호남내륙철도와 영호남내륙철도 진안역과 달빛철도 장수역 간 지선철도 연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를 반드시 반영하라. △국민의 염원과 지역의 미래가 외면 받지 않도록,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